

제목: 베뢰아에서의 고난과 열매

본문: 행 17:10~15

시작찬송가: 205(통236), 95(통82), 135(통133)

헌금찬송가: 432(통462), 349(통387), 445(통502)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10)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량배들까지 동원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밤을 틈타 급히 바울을 베뢰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복음전파로 인한 박해가 그렇게 심했지만 바울은 베뢰아에 가서도 위축되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10) 이에 베뢰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11)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그로 인해 믿는 이가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는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도 있었다고 또한 전합니다.(12) 많은 귀한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 유대인들만큼이나(14:19)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끈질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안”**(13) 그들은 베뢰아까지 쫓아 와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베뢰아 교인들은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14) 하였다가 320km나 떨어진 아테네로 피신을 시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베뢰아에 남겨둔 채 다급히 바울만 아테네로 피신시킨 것에서도(14)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걱정하며 자기를 인도한 베뢰아 교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15)

유대인들의 박해는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은 그들의 박해의 열심보다 강력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바울을 보호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전도의 열매였던 그들은 동시에 바울의 위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좋은 열매로 위로해 주십니다. 더베에서 얻은 디모데,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아리스다고, 베뢰아에서 얻은 부로의 아들 소바더 등은 모두가 그런 ‘위로의 좋은 열매들’이었습니다.(20:4)

1. 말씀을 상고하는 베뢰아 신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음전파의 열매였습니다.

행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뢰아 교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사모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는 성경을 일일이 찾아 “아, 이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확인하며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설교와 성경에 대한 이런 태도는 참 귀한 것인데, “너그러워서”로 옮긴 헬라어의 기본형 <유게네스: euvgenh,j>는 어원적으로 “좋은(euv) 태생(genh,j)”이란 뜻입니다. 말씀과 성경을 대하는 베뢰아 교인들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베뢰아 교인들의 좋은 태도와 마음자세는 분명 바울이 보인 본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무릅쓰고서 성경말씀과 복음을 전한 사역의 열매가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2. 주의 종을 헌신적으로 돌본 베뢰아 신자들은 고난 중에 전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베뢰아 교인들은 또한 몸을 던져 주의 종을 돌보고 섬긴 헌신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 “(불량배)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13) 했을 때 베뢰아 교인들은 바울을 320km나 떨어진 아테네까지 피신시켰는데, 그냥 여비만 주어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 그 먼 길을 동행하며 보호하게 하였습니다.(14~15) 바울이 위험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 열매인 베뢰아의 교인들 역시 위험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카라바조 (Caravaggio: 1573~1610)
〈서재에 있는 성 제롬〉 (1605~1606)
112*157cm. 보르게제 미술관, 로마

중세시대 성화에는 성자 곁에 해골을 그려 넣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림들은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곧 “죽음을 기억하라!”는 신학주제를 담은 그림들입니다. 성자 곁에 해골을 그린 <메멘토 모리> 그림은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사는 이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일러 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성화 속의 인물은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오늘까지도 공식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을 만든 분인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항상 기억하며 제롬이 택한 일생일대의 사역은 당시의 국제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이유도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지혜의 경구를 기억하는 성도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본문의 베뢰아 교인들같이 위협을 무릅쓰고 주의 종을 위기에서 지켜내는 삶, 또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12: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의 한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전도에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의 목회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2. 새성전건축을 위하여.
3. C채널이 세계선교의 도구로 쓰이기를 위하여.
4.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5. 세계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마감 임박.

(투표마감:11월 11일, 투표방법: 001-1588-7715, 문자로 <제주>)

명성교회